

지역 통신표준화 회의

(Interreg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s Conference)

표준화국 김 성 권

1990년 2월 20일부터 미국 워싱턴 근교의 fredericksburg 에서 지역통신표준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TTA 라 함)는 회의의 업서버로 초대되어 성인수국장(KTA), 김정남센터장(ETRI)의 3인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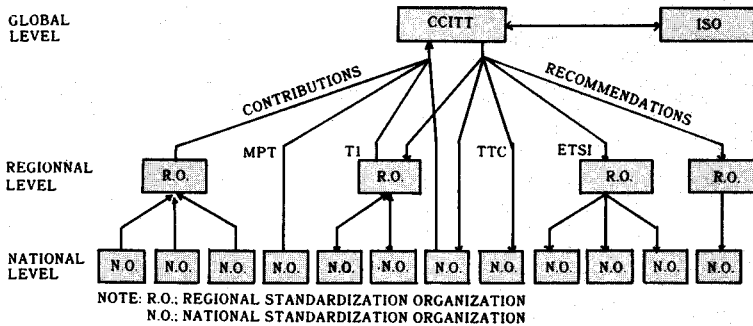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1988년 11월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9차 CCITT 전권위원회에서 결의(Resolution NO. 17 참조)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의 현대화, 유연성, 효율화 및 상호협력등의 구현을 위한 "Sprit of Melbourne"의 실현을 위해 미국 T1 의 제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일본 TTC, 유럽 ETSI, ITU 및 미국 T1 등이 Member 로서 참석하였고 한국의 TTA 를 비롯해 유럽지역, 호주, 캐나다 등 표준화 관련단체 및 업체에서 업서버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자 105명)

회의 진행은 T1 은 Knight 의장이 맡았으며 각 멤버기관들의 임무, 조직, 표준작성의 절차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한 설명이 있었고, 표준화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급문제, 표준의 개발 방법 및 각 단체들의 작업내용에 대한 정보교환등에 대하여 공개 토의가 진행되었다. TTC, ETSI, T1, ITU 의 순서로 진행된 각 단체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TC에 대해서는 Habara 표준화 회의 의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의 표준들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성된 표준(안)이 CCITT 등에 기고서로 제출(이를 Up-Stream 이라 표현)되어야 하고, 국제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표준으로 작성, 보급 및 시행(이를 Down-Stream 이라 표현)하여야 한다. 현재 TTC 는 일본내의 Down-Stream 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Up-Stream 은 우정성내의 전기통신기술심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TTC 에서는 표준작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표준작성시 표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각계의 합의를 취하고 있다.

TTC Membership	(90. 2. 현재)
Type 1 Telecommunication Carriers	10
Type 2 Telecommunication Carriers	14
Manufacturers	68
Others	38
Total	130
(외국인업체 18개 포함)	

TTC Standards	(90. 1. 현재)
JT -	81(CCITT 관련표준)
JS -	2(ISO 관련표준)
JJ -	8(순수 일본표준)
Total 91	



(그림1) 표준화 활동현황(TTC 제출자료중)

ETSI 에 대해서는 Loenberg 의장으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1988년 유럽의 PTT, 업계 및 관심자들이 참가하여 설립되었으며 회원으로의 참가는 앞으로 개방할 것이다. 현재 회원수는 175명이 고, 작성된 표준은 12건(Terminal 관련표준)이다. 표준화 작업은 연간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 의하여 표준초안이 작성된다. 그리고 이동통신, ISDN 등 중요과제는 Strategic Group 을 구성하여 담당하고 있다. 현재 조직 및 업무진행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T1 에 대해서는 Reilly Arthur 부의장의 설명이 있었다. 1984년 AT & T 의 분할에 따라 T1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182 Members 가 활동하고 있다.

T1 Membership	(90. 2. 현재)
Exchange Carrier	18
Inter-exchange Carrier	10
Manufacturer	44
User and General interest	18
Observers	92
Total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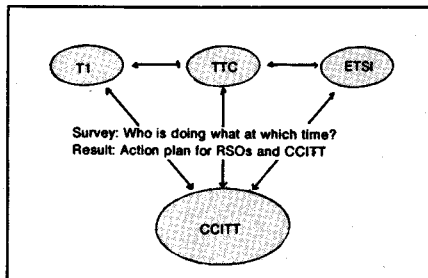
해외출장보고

T1 은 표준작성 및 기술보고서 작성을 그 임무로 하며, 작성된 표준은 ANSI 를 통해 국가표준으로 승인되고 국제권고를 위한 기고서는 미국무성내의 CCI's 위원회를 거쳐 제출된다. 국제권고를 위한 기고서는 T1 의 하부조직인 T1S1 에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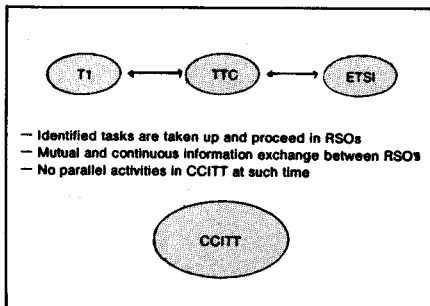
회의 첫날저녁에 Panel Discussion 이 있었으며 이때 우리대표측의 최양희박사(ETRI) 가 표준화회의의 지역내 활성화, 국제표준기구간의 중복분야 제거, 표준화 관련정보의 전산화등을 주장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회의중 CCITT 의 Irmer 위원장으로부터 표준화 진행절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그림 2 참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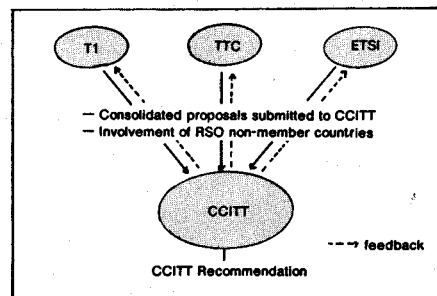
- (스텝 1) 각 표준화기관은 표준화계획 관련정보를 계속적으로 교환한다.
- (스텝 2) 지역표준화기관(RSO)은 상호교환된 정보를 가지고 CCITT와는 독립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때 CCITT 는 RSO 의 활동을 Monitor 하여 중복작업을 피하도록 유도한다.
- (스텝 3) RSO 간에 합의된 표준(안)은 기고서로 CCITT 에 제출되어 국제권고로서 결정된 후 RSO 는 그 권고에 따라 국내 표준화를 실행한다.



Step 1 - Identification of tasks



Step 2 - RSOs in action



Step 3 - CCITT in action

(그림2) 표준제정절차(CCITT 제안)

금후의 표준화 관련 정보의 교환 및 협력방법등에 대한 토의결과 "Fredericks-burg Plan"이란 합의사항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 ITSC 회의에 참가한 기구 및 앞으로 참여할 기구는 세계의 표준화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 CCITT 의 Director 는 Informal 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Ad-hoc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는 각 분야에 대하여 각 기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토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CIR 도 유사한 작업을 행한다.)
 - 위 계획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Objective, Scope 및 Timescale 을 정할 것이다.
 - CCIR 과 CCITT 의 Director 들은 이 자료를 사용하여 기구내의 작업 우선순위를 강화할 것이다.
 - 따라서 참여기구는 다른 표준화기구에서 행하는 작업을 알게될 것이므로 많은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다.
 - ISDN 을 이용한 자료의 교환을 최단시간내에 실현시킨다. 또한 CCITT 의 위원장은 ISO, IEC, ITU 및 지역표준화기관 간의 Ad-hoc 회의를 구성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종합한다.
- 다시 정리하면 지역 표준화기관들의 표준화 계획을 ITU 의 주재아래 조정하고 이를 ITU 의 Program 과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복된 연구가 줄어들고 지역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자료의 교환이 큰 문제로서 이를 가능한한 빨리 전산화한다는 것이다.

본 회의에서 얻는 성과는 TTA 의 표준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국에 알린데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을 국내의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관계자들도 세계적인 표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